

문화



〈김송근씨〉 〈이병오씨〉 〈정순이씨〉 〈정흥기씨〉 〈주재현씨〉

12월 광주미협회장 누가 뛰나

김송근·이병오·정순이·정흥기·주재현씨 출사표
회원 처우개선·창작지원 핵심 쟁점...과열 양상도

오는 12월 치러지는 제9대 광주미술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돌발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회원들의 처우개선과 창작 지원 문제 등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과 맞물려 광주미협 회장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2~3명의 후보가 출마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5명이나 출사표를 던졌다. 아직 후보 등록 등 공식 선거 일정이 잡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현재 표방다지기에 나선 후보는 김송근(56·한국화), 이병오(53·문인화), 정순이(56·서양화), 정흥기(53·서양화), 주재현(49·한국화·이화 가나다순) 등 5명이다.

이들은 ▲미술인 창작지원 및 복지 향상 ▲창작 지원금 확충 ▲회원 해외 진출 지원 ▲작가 재교육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두드리고 있다. 미술계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에 5명의 후보가 출마해 특정 후보에게 '표 쏠림' 현상이 사라지고,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송근씨는 아산 조방원 화백을 사사하고 전남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목공미술관, 의재미술관 등에서 화예실장을 역임했던 행정 경력을 강조하고 있다. 창작 기금 확충과 국내외 아트페어 참여를 돕는 등의 작가 지원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병오씨는 금봉 박행보 선생을 사사한 뒤 현재 한국미술협회 문인화 분과 이사, 광주미협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폭넓은 미술협회 활동을 장점으로 내세운 그는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미술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정순이씨는 조선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 미술대학 외래교수를 맡고 있고, 한국미술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외 아트페어와 비엔날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한편, 기입했던 행정 경력을 강조하고 있다. 창작 기금 확충과 국내외 아트페어 참여를 돕는 등의 작가 지원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재현씨는 조선대 회화와 출신으로 일본 동경예술대학 대학원에서 보존수복기술을 전공하고, 조선대 의과대학을 중퇴한 이색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학구적인 경력을 바탕으로 작가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대규모 전시회를 통해 작가들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임기 3년의 제9대 미협 회장은 서양화(483명), 한국화(268명), 문인화(113명), 서예(386명), 조각·미디어(151명), 판화(20명), 공예(131명), 디자인(62명), 경륜(3명) 등 총 1천614명의 투표로 선출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가을길목 재즈신율이 빠지다

‘재즈파크 빅밴드·유열의 싱싱싱’...10일 문예회관



〈가수 유열〉

‘Fly me to the moon’ 등 한국인이 좋아하는 재즈 명곡을 화려한 빅밴드 공연으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광주문예회관이 기획공연으로 준비한 ‘재즈파크 빅밴드와 유열의 싱싱싱’이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재즈 빅밴드 공연은 광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무대에 서는 ‘재즈파크 빅밴드’ 리더이자 바리톤 색소폰을 맡고 있는 이인관 등 젊은 재즈 뮤지션 16명이 유기투합해 만든 그룹으로 지난해 첫 앨범을 발표, 평단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광주 공연에서는 빅밴드 연주곡의



〈재즈파크 빅밴드〉

고전이라 할 수 있는 ‘Sing Sing Sing’과 ‘In the mood’를 원곡의 스윙 리듬 대신 강력한 펑크로 재해석해 젊고 역동적인 사운드로 들려준다. 또 ‘Fly me to the moon’은 감미로운 보사노바 스타일로 연주하며, 로맨틱한 발라드 ‘The nearness of you’는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로 들려준다.

재즈파크 빅밴드와 함께 무대에서 가수 유열은 본인의 히트곡 ‘이별이래’ ‘화려한 날은 가고’를 재즈 빅밴드 스타일로 편곡해 들려주며, 즐겨 부르던 재즈 레퍼토리도 선보인다.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062-510-92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유와 즐거움이 있는 문화지하철

12일까지 메트로 축제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는 12일까지 제 6회 메트로 축제를 연다. ‘타는 곳마다 여유, 내리는 곳마다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각 지하철 역사의 테마를 살려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라디오타이머, 지하철 노선 사전거투어, 대중교통 메아리 공연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축제 기간 동안 각 지하철 역사에서는 원로작가전 국악한마당, 찾아가는 시낭송회, 광주사랑 시화전 등이 열리며 본 행사는 11~12일 농성역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제6회 메트로 축제 행사 가운데 하나인 아트전시회 모습.

본 행사 프로그램은 유아예술 공연 대회, 백일장, 아마추어 댄스 경연대회 등이며 무료건강 검진, 문화체험, 놀이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문의 062-604-80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권운동가 춘향 만나볼까

풍자극 ‘똥다 춘향 아씨’ 4~6일 북구청소녀수련관



조선시대 절개의 상징인 춘향이 여권운동가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잘 알려진 고전작품인 ‘춘향전’을 유쾌하게 비튼 풍자 해학극 ‘똥다 춘향 아씨’(사진)가 4~6일 광주 북구청소녀수련관 무대에 오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맡아 지난 7월 경기도 의왕시 여성회관에서 성황리 공연했던 작품이기도 하다. 여성에게만 절개를 주장하는 세대

에 반기를 든 주인공 춘향은 월매, 향단과 여성인권쟁취위원회를 조직해 남원골의 유명한 바람둥이 이몽룡을 혼인빙자 간음죄로 법정에 세운다. 하지만 재판관과 검사, 변호사가 모두 남자인터라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갈까. 지난 2005년 광주에서 모노드라마 ‘셀프 카메라’를 공연하기도 했던 광주 출신 연극인 양승걸씨가 연출과 대본을 맡았다. 춘향역의 이정애씨를

비롯해 정난희·이장원·신영진·방용원씨 등 서울 대학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들이 출연한다. 신나는 타악기의 라이브 연주가 분위기를 돋운다. 티켓 판매 금액의 일부는 광주 지역 목가 노인을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2천원, 문의 062-268-232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희수 시인 등단 30년 기념 시집 발간

올해 이순(耳順)을 맞은 김희수 시인이 등단 30년을 기념하는 시집 ‘저 들녘에 내가 있다’를 펴냈다.

김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인 이번 시집에는 ‘국밥 먹고 꽃 가게 살겠다’ ‘땀 발 사방’ 등 한층 깊어진 삶의 통찰력으로 남도 정서와 점애한 현실을 찰지게 버무린 시 60여편이 5부로 나뉘어 실렸다. 담양에서 태어나 임혹했던 유신시절 대학을 다녔고,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때 친구 윤성원을 잃었던 김 시인

은 1983년 ‘민족과 문학’에 ‘우리들의 아들’, ‘마침내 시인이여’(장비 퍼냄)에 ‘뽕밭기의 노래’를 발표한 이래 민족 현실과 민중의 생명력을 노래해 왔다. 시집으로는 ‘오늘은 꽃잎으로 누울지라도’ ‘지는 꽃이 피는 꽃들에게’ ‘사랑의 화학반응’ 등이 있다. 시집 출간기념회는 4일 오후 7시 광주 북구 일곡도서관, 문의 062-651-6968. <문학동향 8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영화안내 HAPPY TIME' featuring cinema listings for Mega Box, Columbus Cinema, Hami Cinema, Sinner's Paradise, and Zeil Cinema. Each listing includes showtimes, movie titles, and contact information.